

보도자료

I.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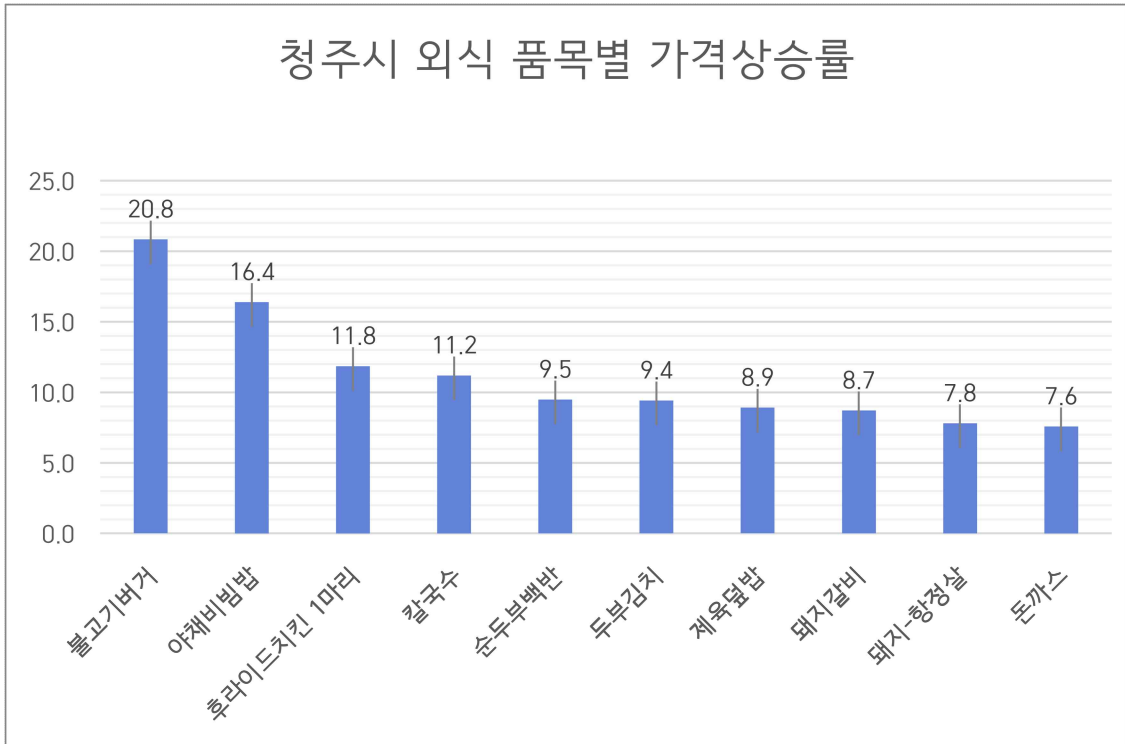
1. 청주시 외식 소비자물가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내 외식가격 변화를 파악하고,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 변화,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재료와 포장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인력난, 유가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외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는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 음식점 외식물가의 상승·하락 현황을 조사하여 가격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돼지고기(목살·삼겹살·항정살) 등 총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청주지역 음식점 1,029개소의 가격 실태를 조사하였다.
3. 조사 결과, 청주시 음식점 1,029개소의 음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조사개요

- ① 조사대상 : 청주지역 음식점 1029곳
- ② 조사기간 : 2026년 06월 8일
- ③ 조사내용 : 청주지역 음식점 가격 실태조사
- ④ 조사방법 : 모니터 현장 방문설문조사
- ⑤ 조사품목가격 및 단위 : 1인분 또는 중 기준을 평균하여 계산함

Ⅲ.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인 청주시 음식점 1,029개소의 음식 가격은 전년(2025년) 대비 평균 4.9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 2025년 대비 청주시 외식품목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품목>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불고기버거로, 평균 가격이 5,102원에서 6,140원으로 2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야채비빔밥은 9,000원에서 10,475원으로 16.4%, 후라이드치킨은 18,424원에서 20,608원으로 11.8%, 칼국수는 7,915원에서 8,800원으로 11.2%, 순두부백반은 9,660원에서 10,575원으로 9.5%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음식품목별 전년도/당년도 인상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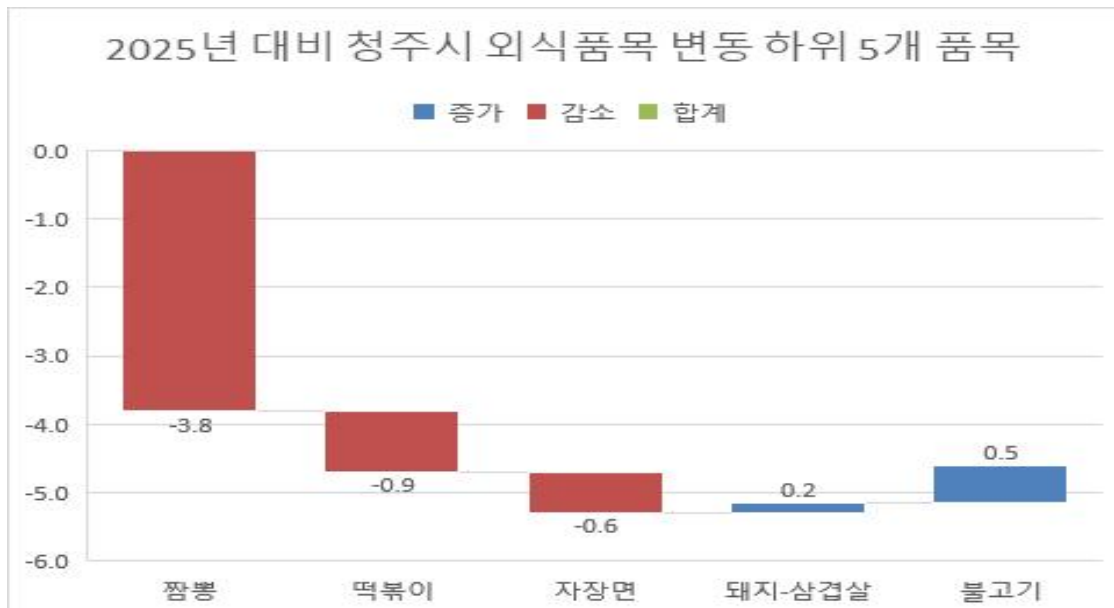
지역	불고기버거		야채비빔밥		후라이드치킨		칼국수		순두부백반	
	전년도	당년도	전년도	당년도	전년도	당년도	전년도	당년도	전년도	당년도
청주시 음식점	5,102	6,165	9,000	10,475	18,424	20,608	7,915	8,800	9,660	10,575
	△20.8%		△16.4%		△11.8%		△11.2%		△9.5%	

<그림2. 청주시 품목별 인상 전/인상 후 인상률 가격표>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 외식 메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청주시 음식점 가격 조사 결과, 상승률이 가장 낮거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짬뽕(-3.85%), 떡볶이(-0.9%), 자장면(-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삼겹살(0.2%), 불고기(0.5%)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조사 품목 중 일부 메뉴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상승세를 나타내 전반적인 외식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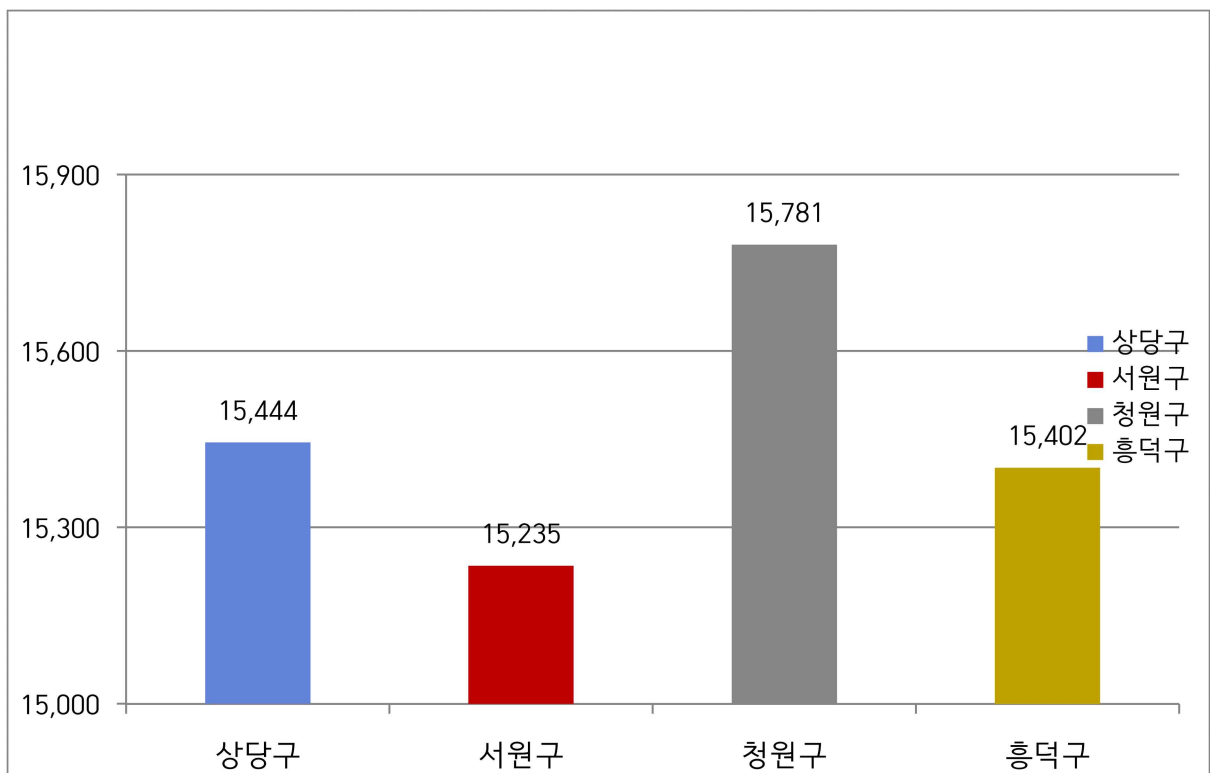
<그림3. 2025년 대비 청주시 외식품목 가격 하락 및 낮은 상승률 현황>

2026년 조사 결과, 35개 조사 품목 가운데 전년 대비 평균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짬뽕(-3.85%), 떡볶이(-0.9%), 자장면(-0.6%) 등 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삼겹살(0.2%), 불고기(0.5%)는 소폭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낮았다. 특히 돼지고기 관련 품목의 경우 공급 안정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에 따라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외식 품목 전반에서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물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주시 4개 구(상당구 248곳, 서원구 254곳, 청원구 178곳, 흥덕구 349곳) 소재 음식점 총 1,029곳을 대상으로 35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원구로 나타났다.
- 청원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버섯찌개(중), 부대찌개(중), 육개장, 삼계탕, 닭볶음탕, 감자탕(중), 기본 라면, 자장면, 돼지-항정살(200g) 등 총 11개 품목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다.
- 이는 오창·울량지구 등 신도시 상권의 성장과 유동인구 증가, 상업시설 밀집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4. 청주시 지역구별 35개 음식 평균값 청원구의 외식 품목>

4. 전년에 이어 2026년에도 청원구의 외식 품목 평균가격이 4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구의 35개 품목 평균가격은 15,781원으로, 상당구 (15,444원), 흥덕구(15,402원), 서원구(15,235원)보다 높게 조사됐다.
- 이러한 결과는 오창·울량지구를 중심으로 한 상권 성장과 유동인구 증가, 신규 상업시설 확충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별 상권 규모와 입지 여건, 임대료 및 운영비용 등의 차이가 외식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종합적분석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 음식점 1,029개소를 대상으로 35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외식물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인상률 4.32%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고기버거, 야채비빔밥, 후라이드치킨, 칼국수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메뉴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으며, 식재료비·인건비 상승과 배달서비스 수수료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짬뽕, 떡볶이, 자장면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 품목이 더 많아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원구가 35개 품목 평균가격 15,781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구별 외식비 상승요인은 물류비·임대료 격차(도심↔외곽), 오창·율량·동남지구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확장으로 유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청주시 외식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소비자 대상 가격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